

승려 자질향상·사회참여 확대 필요

‘불교인재양성·교육현실’ 설문조사

한 집단의 역량은 구성원들이 지닌 역량의 총합이다.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시대적 사명과 당면 문제 해결,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교육이다. 제대로 된 교육없이 미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지는 신년 기획특집으로 전국 120여 사찰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인재양성 및 교육 현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승·재가 교육체계의 불교계의 인력활용실태를 점검해 봤다.

고 답한 것은 불교의 열악한 ‘인재 양성 풍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인식 부족’ ‘외형적 불사 우선 풍조’ ‘학맥·인맥·문중 이익’ 등이 지적됐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여자(75.2%)보다는 남자(80.1%), 10~30

요’(5.4%)라는 응답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체계가 없다’(44.4%) ‘교육 열의가 낮기 때문’(28.8%) ‘교육의 질이 낮다’(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인식은 재가자 교육과 관

인재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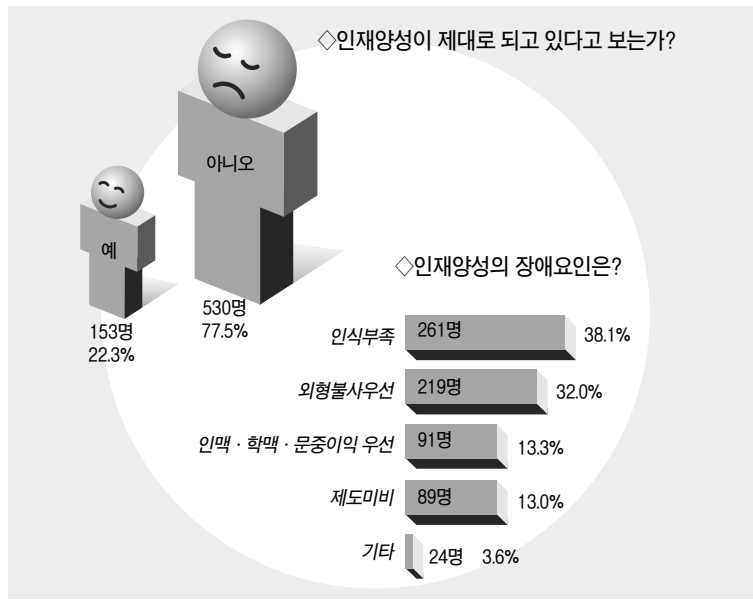
불자들은 승·재가 교육 현실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교·역경·복지 등 전문분야의 승·재가 인재양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7.5%가 ‘아니다’라

전문분야 승·재가자 교육 제대로 안돼

여성사회참여 ‘불교계 준비부족’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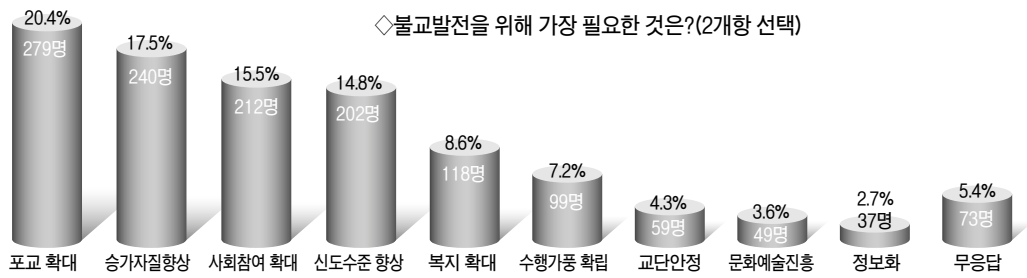
대(76.1%)보다는 40대 이상(77.5%)에서 다소 높았다. ‘현재의 승가교육이 고학력 사회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8.3%) ‘미흡하나 무리없다’(35.1%) ‘보완해야 한다’(51.2%) ‘전면 재검토 필

연한 질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3%가 ‘보완할 것이 많다’거나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승가교육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똑같이 제기됐다.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불교계의 준비와 노력’에 대해서는 응



답자의 16.1%만이 ‘충분하다’고 답했을 뿐, 47.5%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성인력 활용을 위

해서는 불교계에 만연돼 있는 남녀 차별 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설문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응답자들이 승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도 불교의 미래에 거는 기대는 오히려 크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대중의 사표로서 승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66%나 됐다. 그 이유로는 ‘사회문제 등 현안에 적절히 대

승가역할과 불교의 미래

응하지 못하기 때문’(32.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불자들은 한국불교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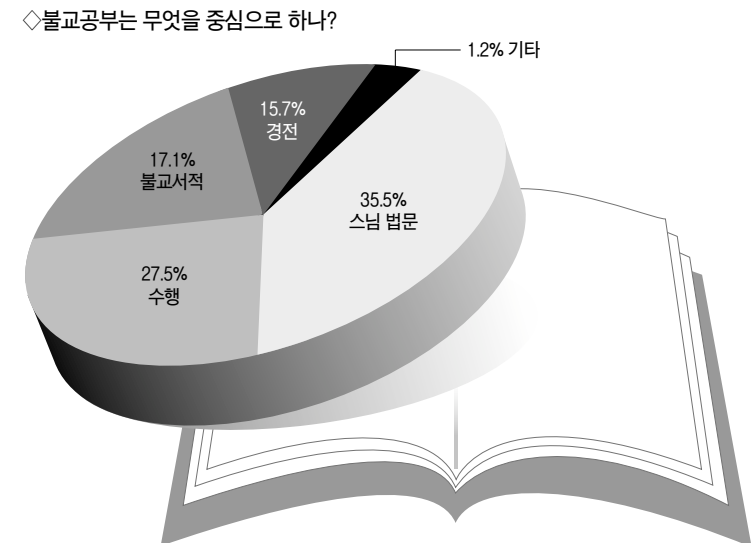
승가, 사표로서 제역할 못하고 있다 66%

불교미래 “밝다” 38.4% “어둡다” 22.7%

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망이 ‘밝다’(38.4%)는 응답이 ‘어둡다’

(22.7%)보다 높았다. ‘밝다’고 답한 불자들은 불교의 가치가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어둡다’고 답한 불자들은 불교의 사회참여 부족과 일반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불교의 사회

불교 발전에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자 전체는 ‘포교 강화-승가자질 향상-사회참여 확대-신도수준 향상’ 순으로 꼽았다. 그러나 한국 불교의 앞날이 밝다고 전망한 응답자들은 ‘포교 강화-신도수준 향상-사회 참여 확대-승가 자질 향상’ 순으로 비중을 둔 반면, 어둡다고 전망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승가자질 향상-사회참여 확대-포교확대-신도수준 향상’ 순이었다. 불교미래를 비관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앞서 지적한 사회참여 외에 승가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불자(60.1%)가 남성불자(39.9%)보다 많았던 것은 여전히 여성불자가 신도회(청년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응답자의 불교 공부 주요방편은 ‘스님법문-수행-불교서적-경전’ 순으로 나타났지만, 남자의

상이 가장 높았다. 신도회(청년회) 활동이 신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43.0%)이었으며, 최소한 절반 이상 법회에 참석한다는 응답도 80%에

신행 패턴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58% 정도였지만, 활동 연수는 5년 이하가 65%나 돼 대다수 불자들이 전 체적으로 늦게 신도회(청년회)활

설문응답 불자, 여성 60% 남성 40%

불교공부, 법문-수행-불교서적-경전順

경우에는 불교서적으로 공부하는 비율이 경전보다 높았다. 또 성별, 연령별을 통틀어 경전공부를 최우 선 방편으로 삼는 비율은 40대 이

달해 신도회(청년회)에 가입한 불자들의 신행은 상당히 열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김철우 기자

설문조사 결과

- 귀하의 성별은?
남 273명(39.9%) 여 411명(60.1%)
- 나이는?
10대(1.5%) 20대(17.4%) 30대(25.2%) 40대(33.5%) 50대 107명(15.7%) 60대(6.2%) 70대 이상(0.5%)
- 불교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①3년 미만(21.7%) ②3~5년(15.9%) ③6~9년(18.8%) ④10~19년(28.5%) ⑤20년 이상(14.3%) 무응답(0.8%)
- 귀하의 신도회(청년회) 활동 연수는?
①3년 미만(40.3%) ②3~5년(24.4%) ③6~9년(15.7%) ④10~19년(15.5%) ⑤20년 이상(2.7) 무응답(1.4%)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신도회(청년회)에 가입한 동기는?
①주위의 권유로(25.6%) ②점 가까이 있어서(5.6%) ③스스로 선택해서(63.6%) ④기타(4.4%) 무응답(0.8%)
- 신도회(청년회) 모임에 어느 정도 참석합니까?
①빠지지 않고 참석한다(43.8%) ②절반 정도 참석한다(34.9%) ③가끔씩 참석한다(15.5%) ④거의 참석하지 못 한다(5.6%) 무응답(0.2%)
- 귀하의 신행 중에서 신도회(청년회) 모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①높다(43.0%) ②다른 활동과 반반이다(32.6%) ③낮다(24.4%)
- 불교공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①경전(15.7%) ②수행(참선이나 기도정진)(27.5%) ③스님 법문(35.5%) ④불교서적(17.1%) ⑤기타(3.7%) 무응답(0.5%)
- 사찰운영이나 포교, 사회참여 등 재가자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매우 활발하다(2.9%) ②활발한 편이다(18.1%) ③보통이다(38.0%) ④다소 부족하다(25.0%) ⑤매우 부족하다(12.0%) 무응답(4.0%)
- 불교와 사회발전에 꼭 필요한 전문 분야(포교, 역경, 복지, 문화 등)의 인재양성과 활용(승·재가 망라)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예(22.3%) ②아니오(77.5%) 무응답(0.2%)
- 10-1. (10번 질문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가장 큰 장애요인을 꼽는다면?
①인맥, 학맥, 문중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토 때문(13.3%) ②인재양성 인식 부족 때문(38.1%) ③장학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13.0%) ④외형적 불사를 우선시하기 때문(32.0%) ⑤기타(3.6%)
- 현재의 재가자 교육의 질과 양을 평가한다면?
①매우 잘 되고 있다(6.6%) ②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잘 되고 있다(40.3%) ③보

- 완해야 할 것이 많다(48.6%) ④매우 잘 못하고 있다(4.5%)
- 11-1. (11번 질문에 ③④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교육의 체계가 없다(51.2%) ②교육의 질이 낮다(13.8%) ③교육 열의가 없다(32.8%) ④기타(2.2%)
12.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①충분하다(2.3%) ②비교적 충분하다(13.8%) ③그저 그렇다(36.4%) ④다소 부족하다(30.4%) ⑤매우 부족하다(17.1%)
13. 현재의 승가가 대중의 사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①예(29.7%) ②아니오(66.2%) 무응답(4.1%)
- 13-1. (13번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자질이 부족한 스님이 많기 때문(13.5%) ②사회문제 등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32.4%) ③승가 본연의 가풍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23.0%) ④대중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29.8%) ⑤기타(1.3%)
14. 현재 승가교육이 고학력 사회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봅니까?
①충분하다(8.3%) ②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별 무리는 없다(35.1%) ③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51.2%) ④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5.4%)
- 14-1. (14 번 질문에서 ③④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①체계가 없다(44.4%) ②교육의 질이 낮다(20.9%) ③교육 열의가 낮기 때문(28.8%) ④기타(5.9%)
15. 한국불교 미래를 전망한다면?
①밝다(38.4%) ②현재 유지하는 정도(37.4%) ③어둡다(22.7%) 무응답(1.5%)
- 15-1. (15번 질문에서 ①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승가의 수행풍토 쇠퇴(12.5%) ②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29.7%) ③불교 가치의 보편화(30.0%) ④승·재가의 활동 증대(24.3%) ⑤기타(3.5%)
- 15-2. (15번 질문에서 ③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를 꼽는다면?
①스님들에 대한 실망(20.7%) ②불교의 사회참여 부족(35.5%) ③불교에 대한 일반의 관심 저하(22.6%) ④승·재가불자들의 활동 미흡(21.2%)
16. 불교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승가 자질 향상(17.5%) ②신도수준 향상(14.8%) ③포교 강화(20.4%) ④복지 확대(8.6%) ⑤사회참여 확대(15.5%) ⑥문화·예술 진흥(3.6%) ⑦정보화(2.7%) ⑧수행가풍 확립(7.2%) ⑨교단 안정(4.3%) ⑩기타(0.2%) 무응답(5.2%)